

손승락·정재훈 '특급 투수' 등판 "살아있네"

KIA 타이거즈
오키나와 캠프를 가다
 일본 = 김여울 기자  **광주일보**

KIA 타이거즈가 '특급 투수'들을 투입해 야수진의 중간 점점 시간을 가졌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마무리캠프를 하고 있는 KIA 선수단은 20일 킨 구장에서 미니 게임을 진행했다.

이날 경기에 앞서 덕아웃에는 백팅과 흑팀으로 나눠진 라인업이 걸렸다. 투수들의 이름은 적혀있지 않았다.

투수들은 오전 훈련 뒤 웨이트 훈련을 위해 이동한 한 상황, 대신 KBO리그를 대표했던 투수들이 마운드에 등장했다.

백팀에서는 손승락 수석코치가 선발로 나섰다, 흑팀 선발로는 정재훈 코치가 등장했다. 두 코치는 현역 시절 마무리로 이름을 날린 투수들이다.

와일드한 투구폼으로 공격적인 피칭을 했던 손승락 코치는 현역 시절 3.64의 평균자책점으로 45승 49패 7홀드 291세이브를 기록했다. 포커페이스였던 정재훈 코치는 포크볼로 타자들을 유인하면서 3.14의 평균자책점으로 35승 44패 84홀드 139세이브를 장식했다.

경기 전 배우는 "두 분이 합쳐서 한 세이브가 몇 개야"라면서 양팀 선발의 기록을 찾아보기도 했다. 또 "무조건 높은 코스를 봐야 할 것 같다. 변화구 생각하다 보면 작구에 늦을 수 있다"고 정재훈 코치 공략법을 언급했다.

정식 연습 경기는 아니지만 경기는 경기, 이날 선수들은 '상급 내기'까지 하면서 경기장 분위기는 뜨거웠다. 이에 맞춰 등장송과 함께 마운드에 오른 두 선발은 최선을 다해 공을 던졌다.

손승락 코치는 등판 전 트레이닝 파트를 찾아 선발 준비를 했고, 베이스 커버까지 들어가면서 상대를 압박했다. 정재훈 코치는 여전히 포크볼 실력을 과시하면서 1회 타자들의 방망이를 춤추게 만들었다.

두 선발이 공을 던질 때마다 양팀 덕아웃에서는 감탄사가 나왔고, 타석을 마치고 돌아온 타자들은 고개를 저었다. "쇼케이시 하는 것 아니냐", "타자

야수진 중간 점점 미니 게임 진행
 정재훈·손승락 코치 마운드 올라
 5이닝 소화하며 타자들 '압도' "즐거운 경기로 동기부여 됐길"

를 확인해야 하는데 투수전이다. 공도 못치고, 주루도 못 하고 있다"는 소리로 덕아웃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마무리 출신들이라서 1회면 끝이 날 것이다"라던 다케시 배터리 코치의 예상과 달리 두 선발은 3이닝씩 소화를 했다.

5회까지 치러진 경기가 5아웃제로 진행된 만큼 두 선발은 사실상 5이닝을 책임진 셈이다.

박민이 손승락 코치를 상대로 적시타를 때리면서 흑팀이 선취점은 가져왔지만, 볼펜이 가동되면서 경기 분위기가 바뀌었다.

외국인 투수 미즈마타 타이키 수비 인스트럭터를 상대한 신인 임준현이 2루타를 기록하는 등 백팀이 타자일순하는 공세를 펼쳤다. 특히 이영재가 시원한 홈런까지 선보이면서 분위기를 뒤집었다.

백팀 세 번째 투수로 나선 볼펜 포수 최규상의 갑작스러운 제구 난조로 흑팀이 5-6까지 추격, 경기 상황은 긴박해졌다.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갈 경우를 대비해 흑팀에서는 이동길 투수 코치도 대기시켰지만 경기는 그대로 백팀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오랜만에 공을 던져서 팔이 안 올라간다"며 웃은 손승락 코치는 "감독님이 선수들이 즐겁게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코치들이 프로그램 잘 짜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선수들에게 즐거운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 한다. 즐거워야 동기부여가 된다"고 언급했다.

코치진의 바람대로 "경기해서 재미있었다"고 말한 외야수 김혁은 "재미있었지만 코치님들이 너무 강하게 던지셨다. 불이 좋았다. 특히 마운드 세발 앞에서 던지니까 더 힘들었다. 오늘 패배를 인정한다. 손승락 코치님한테 3행이다. 됐다"며 패배를 인정했다.

즐거운 경기를 통해 박민은 그동안의 성과를 확인했다.

내야수 박민은 "내가 해야될 것들이 잘되고 있는



KIA 타이거즈의 정재훈 투수코치(왼쪽)와 손승락 수석코치가 20일 일본 오키나와 킨구장에서 진행된 미니게임에서 선발로 나와 공을 던지고 있다.

것 같다. 연습경기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수비에서 차분한 플레이가 되는 것 같다"고 실전 점점에 만족감을 보였다.

손승락 코치와 배터리를 이었던 이상준은 프로의 실력과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준은 "상당한 것보다 공이 좋았다. 현역 때

좋은 건 알았는데 많이 쉬셨으니까 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했다. 현역시절에 왜 그런 공을 던졌는지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연습 때 방향성을 잡아도 실전에 안 하면 소용이 없다. 방향성을 조금 더 잡을 수 있었던 것 같다"며 "무조건 세게 치는 것보다는 공을 중심에

맞히는 연습을 하고 있다. 힘이 좋으니까 정확하게만 맞히라고 하셔서 그 부분 준비하고 있다. 조금 더 해야 할 것 같지만 타격폼도 바꾸고 주찬 코치님 이랑 코치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내년 시즌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

/글·사진=wool@kwangju.co.kr

“파워있는 KIA 우타자 ‘이영재’입니다”

군 복무 마친 3년차 기대주
 미니 게임서 결승 홈런 작렬
 “수비·주루 보완하며 알찬 캠프
 부상 없이 장타로 살아남겠다”

KIA 타이거즈의 오키나와 마무리캠프 연습경기에서 시원한 홈런이 터져 나왔다. 주인공은 외야수 이영재였다.

유신고 출신의 이영재는 지난 2021년 2차 5라운드 지명을 받고 프로 무대에 뛰어든 KIA의 기대주다. 파워가 좋은 그는 지난 3월에는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군필'이기도 하다.

좌타자가 많은 KIA에서 힘있는 우타자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는 20일 일본 오키나와 킨 구장에서 진행된 캠프 실전에서도 힘을 보여줬다.

투수들을 상대로 한 연습경기 아닌 '미니 게임'이었지만 백팀 7번 타자 겸 좌익수로 나선 그는 정재훈 투수 코치에 이어 흑팀의 두 번째 투수 나선 미즈마타 타이키 수비 인스트럭터를 상대로 좌중간을 훌쩍 넘기고 그라운드를 뚫었다.

이영재의 한방을 앞세운 흑팀은 6-5 기본 좋은 역전승을 거뒀다.

이영재는 "내기가 걸린 경기였는데, 이겨서 좋았고 홈런을 쳐서 기분이 좋다"고 웃었다.

자신의 강점인 배팅에 집중하고 있는 그는 수비·주루 부족한 점을 채우면서 알찬 캠프를 보내고 있다. 그리고 준비했던 것을 실전에서 시험해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경기였다.

이영재는 "타격으로 어필하고 보여줘야 한다. 안타가 아닌 장타를 보여줘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중점을 두고 열심히 하고 있다. 홈런 생각은 안 했는데 기분이 좋다"며 "확실히 연습하는 것과 실제 하는 것은 다른 것 같다. 변화구도 섞이고 구석구석 볼 깔도 달랐다. 생각한 것보다는 좋은 타구 나온 것 같아서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또 "타격이 가장 큰 강점인데, 우리팀 외야 상황을 보면 나랑 비슷한 우타자는 없다고 생각한



KIA 타이거즈의 이영재가 20일 일본 오키나와 킨구장에서 진행된 미니게임에서 홈런을 친 뒤 그라운드를 뚫고 있다.

다. 좌타자가 많아서 승부해볼만 하다고 생각한다"며 "부상 없이 다치지 않고 한국 들어가는 게 첫 번째 목표다. 또 여기서 배운 것을 토대로 한국

가서도 보충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글·사진=wool@kwangju.co.kr

KIA 김도영, 은퇴선수협 '최고의 선수'

내달 1일 시상식 겸 아마 선수 지원 장학회 개최

KIA 김도영이 은퇴선수들이 선정한 최고의 선수가 됐다.

한국프로야구 은퇴선수협회(이하 한은회·회장 안경현)는 20일 "2024 한국프로야구 은퇴선수의 날에 최고의 선수로 김도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도영은 올 시즌 최연소 30-30 달성, 역대 최소경기 100득점, 역대 단일시즌 최다 득점을 기록하며 '최고의 선수상' 주인공이 됐다. '최고의 신인상'은 KBO리그 최초로 고졸 신인 데뷔 시즌 최다 세이브를 기록한 김택연(두산)에게 돌아갔다.

이번 시상식은 12월 1일 오후 5시 호텔 리베라 청담 베르사이어 홀에서 열리는 '2024 한국프로

야구 은퇴선수의 날'을 통해 이뤄진다.

시상식과 함께 아마 선수들을 지원하는 장학회도 개최된다.

한은회는 2013년 설립해 KPBAA 야구캠프, 티볼대회, 야구 교실 등을 열어 한국야구의 저변 확대와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매년 연말에는 은퇴선수가 직접 최고의 현역 선수와 아마 선수를 선정해 시상식을 하고 있다.

올해는 한국야구의 뿌리가 되는 아마 선수들에게 장학금을 후원해 훌륭한 야구선수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첫 번째 장학회의 대상자로 중·고등학교에서 야구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약 15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김여울 기자 wool@

남자 프로배구 '전설' 박철우, 26일 은퇴식

19시즌 뛰며 6623득점 '최다 득점 리그 1위'

남자 프로배구의 '전설'로 통하는 '원손 거포' 박철우(39) KBS N 해설위원이 자신의 배구 인생을 되돌아보는 뜻깊은 자리를 갖는다.

한국전력은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는 26일 오후 7시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24-2025 V리그 삼성화재와 홈경기 때 박철우와 김광국의 은퇴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V리그 원년(2005년) 멤버인 박철우 해설위원은 한국 프로배구의 살아있는 역사다.

현대캐피탈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그는 삼성화재, 한국전력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며 2023-2024시즌까지 19시즌 동안 코트를 누볐다.

원손잡이 아포짓 스파이커인 그는 564경기에 출전해 통산 6623득점, 공격 성공률 52.13%를 기록했다.

박철우는 V리그 통산 최다 득점과 공격 득점은 여전히 1위다.

역대 외국인 선수 중 최다인 일곱 시즌째 V리

그에서 뛰는 레오나르도 레이바 마르티네스(등 록명 레오·현대캐피탈)가 통산 6142득점으로 박철우의 뒤를 잇고 있다.

후위공격 득점에서는 레오가 19일 삼성화재전에서 6개를 추가하면서 2013득점으로 박철우와 타이틀을 이뤘다.

박철우는 2008-2009시즌에는 V리그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에도 올랐다.

2010년 삼성화재로 옮겼고 2020년부터 한국전력 유니폼을 입고 뛰었다.

아포짓 스파이커가 주 포지션이지만 미들 블로커로도 활약했다.

우승 반지를 7개나 소유한 그는 2023-2024시즌 종료 후 은퇴를 선언하고 해설자의 길을 걷고 있다.

지난 시즌까지 한국전력에서 세터로 뛰었던 김광국(37)도 박철우와 함께 선수 생활을 뜻깊게 마무리하게 됐다. /연합뉴스